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 No. 1 & 2 (1980)

百 濟 服 飾 硏 究

——日本古代史에 미친 百濟文化의 影響——

曺 圭 和
國民大學校 造形大學 衣裳學科

A Study on the Costume of Baikje Period

—With Emphasis on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in the Ancient Japan—

Kyu Hwa Cho
Dept. of Costume Design, College of Architecture and
Applied Arts, Kookmin University.

Abstract

Because of the scarcity of data, a study of costume during the Baikje period can be made imaginarily only with historical records as data.

According to records,Baikje costume wa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Koguryo period. Consequently, we may well imagine Baikje costume by means of studying such materials as the mural paintings found in Koguryo tombs and the remains found in the royal tomb of Munyung.

The basic form of costume of the Baikje period, therefore, might have been like this: Both male and female wore a kind of jacket(襦 : JEOGORI) and trousers(袴 : BAJI) with female wearing skirt (裳 : CHIMA) thereon. Both men and women wore overcoat(袍 : DURUMAGI). They used to wear headdress(冠帽) and used leather shoes(靴) Such a form of costume can be found in the costume of HANIWA(埴輪) of Japan, which belonged to the costume of HOBOK (胡服) of the northern area.

Under the SHIMNEUK-PUM-KWAN-KE(十六品官階) system, that is, 16 grades of official ranks, officials of the Baikje dynasty wore clothes, coronets and belts, all of which differed from one another in colors, according to ranks. Such a system of Baikje might have influenced the KANI-JUNI-KAI (the 12-grade color discrimination of the coronet, 冠位十二階)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of ancient Japan the Suiko period.

For the study of such matters, I have tried to review the flow of the Korean culture into ancient Japan in the field of costume.

一 序

百濟는 夫餘系인 高句麗의 流移民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 그 前半期에 있어서는 樂浪, 帶方과의 接觸이 많아 中國文化를 接할 수가 있었다. 特히 高句麗가 南北朝와 通交한 것에 反해서 百濟는 주로 南朝의 諸國과 通交했다.

百濟는 服飾에 關한 遺品과 文獻資料가 아주 드문데 中國의 歷史書, 三國史記, 日本書記, 古事記 等에 조금 記錄되어 있는 程度이다. 그러나 遺品資料는 近年 出土된 武寧王의 副葬品, 高句麗古墳壁畵, 新羅古墳에서 나온 副葬品, 日本의 埴輪 等이 있다.

百濟의 服飾에 關한 問題는 事實 百濟의 問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古代韓國의 服飾에 關한 問題도 되며 當時에 있어서의 韓國文化가 日本에 傳해진 것을 提示하는 役割도 擔當한다.

二. 百濟服飾의 基本型

百濟文化는 525年의 誌石이 있는 武寧王陵이 發掘되어 繁榮했던 文化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게 되었지만 百濟服飾은 再現할 수 없는 狀態이다. 6世紀初, 梁의 職貢圖에 百濟의 使者圖가 있지만 中國化된 것으로 庶民의 服飾은 아니다. 그러나 百濟服飾에 關해서 『魏書』等[1]에 의하면 「其衣服飮食與高句麗同」이라 하여 服飾이 高句麗와 거의 같다고 있다. 또한 『隋書』[2]新羅條에 의하면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이라는 記錄으로 新羅의 服飾은 三國의 服飾과 같아 三國의 服飾이 대개 同一했던 것을 中國史書에 의해서 짐작할 수 있다.

百濟服飾을 高句麗古墳壁畵와 中國歷史書 等에 의해서 考察해 보면 三國時代 服飾의 基本型으로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 그 基本型을 보면, 襦袴, 혹은 襦裳의 上下衣形式으로 그 위에 表衣인 袍를 입었다. 그리고 여기에 冠帽를 쓰며, 靴 혹은 履를 신었다. 이 基本型은 現在韓國의 民族服에서 襦는 저고리에, 裳은 치마에, 袴는 바지에, 袍는 두루마기에 解當되는 것이다.

(一) 襦

上衣인 襦에 關해서는 『三國史記』에 「短衣」라고 있다 「短衣」 즉 襦는 上衣로 袍에 對한 짧다는 意味로 본다. 襦의 形態를 高句麗古墳壁畵의 人物像에 의해서 生覺해보면, 直領, 交衽에 筒袖이고 엉덩이 밑까지오는 기장으로 허리에는 帶를 매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고름은 없다. 襦에는 襈이라고 하는 緣裝飾이 領, 袖口, 裾에 있어서 『北史』[3]에 「婦人의 襦裙에는 襈을 했다는 記錄과 같다. 그러나 襈은 婦人의 襦裙에만 있지 않고 男子의 襦에도 나타난다. 筒袖의 上衣에 袴를 입고 靴를 신는 것은 北方遊牧民族에게 共通되는 服裝形式이다. 防寒이 되고 便利해서 이 服裝이 草原을 달리는 北方騎馬民族에게 適當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우기 上衣는 左衽이다. 中國人은 이것을 胡服이라 하여 趙의 武靈王때부터 胡服을 導入했다. 中國人이六朝時代에 붙렀던 袴褶[4], 혹은 襦袴는 이 胡服을 가르키는 것이기도 했다.

高句麗古墳壁畵는 輯安과 平壤附近의 것이 있는데 이들의 製作年代는 4,5世紀 以後가 된다. 一般的으로 輯安附近의 壁畵는 舞踊塚壁畵의 人物像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左衽의 襦를 着用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右衽의 襦를 着用하고 있는 것은 平壤附近의 壁畵에 더많이 나타난다. 輯安時代의 高句麗는 胡服樣式의 服裝으로 筒袖左衽이 그대로 存續되며 中國의 影響을 받은 平壤附近의 古墳은 右衽으로 變한 것을 알 수 있다. 袖도 筒袖에서 점차 中國의 影響에 의해서 大袖가 나타난다.

여기서 注意해야할 問題가 있다. 壁畵에 나타난 服飾을 볼 때 安岳第三號墳의 主人像과 婦人像, 龍神塚의 婦人像, 藥水里, 雙楹塚의 主人像 等은 거의 中國的인 服飾을 着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高句麗가 平壤으로 遷都한 것은 427年이다. 雙楹塚은 5世紀末頃 造營되었지만 거기에 描寫된 男女像은 典型的인 高句麗服飾을 着用하고 있고, 단지 主人像만이 中國的인 服飾을 着用하고 있다. 平壤으로 遷都하는 前後에 걸쳐서 일부 官員과 豪族의 服飾은 中國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例를 들면 髮型, 袍의 角帶, 履, 裳(龍神塚의 女人像), 半臂, 等이 있다. 이러한 服飾을 着用했지만 高句麗人일 것이다. 通溝의 古墳群은 高句麗樣式인데 이 古墳群이 後期에 屬하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安岳古墳의 人物像의 服飾이 右衽이 되어 있다고 해서 高句麗의 襦와 袍가 右衽에서 左衽으로 되고 다시 右衽으로 變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高句麗人의 氣質로 볼 때 그들은 中國化되는 것을 拒否하고 오히려 後期의 古墳에서 高句麗的인 色彩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

(二) 袴

高句麗壁畵를 보면 男女가 다 袴를 입고 있다. 또한 女性의 袴는 男性과 같은데 女性이 裳을 입고 있는 경우에도 그 속에 袴를 입고 있는 것으로 生覺된다.

下衣로서 着用한 袴는 『三國史記』[5]에 太口袴, 大口袴, 柯半等의 記錄이 보인다. 高句麗壁畵의 人物像等과 종합해서 보면 袴는 幅이 좁은 것과, 大口袴와 太口袴처럼 幅이 넓은 것이 있다. 대개 身分이 낮은 庶民 等은 細袴를 着用하고 幅이 넓은 廣袴는 身分이 높은 사람이 着用했다고 본다. 鐵馬塚, 雙楹塚, 龍神塚의 侍者等의 人物은 細袴를 着用하고 있고 雙楹塚의 主人像은 廣袴를 着用하고 있다. 慶州의 異次頓像과 斷石山石壁에 陰刻된 三人의 供養人物圖는 新羅服飾의 重要한 資料의 하나인데, 各各 長襦와 廣袴를 着用하고 있다.

『梁書』東夷傳百濟條 等[6]에는 「袴는 褌이라고 한다」고 있는데 百濟에서는 褌이 기장이 짧은 것만을 意味한 것이 아니라 바지를 가르키는 意味로 使用했다고 본다. 이것은 當時 日本의 埴輪의 服飾도 衣褌(기누하카마)이라 하여 바지를 가르키고 있으므로 그대로 百濟의 影響이라고 본다. 또한 高句麗 風俗에 窮袴라는

記錄이 있어서 袴의 가랭이가 막힌 것이 있었던 것으로 生覺된다.

그런데 三國時代 遺品中에는 北魏의 供養者像, 혹은 日本의 古墳時代의 埴輪等에 보이는 무릎밑에서 끈으로 묶은 形式(日本에서는 아유이〈脚結〉라고 함)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雙楹塚의 貴人像은 발목에서 묶은 것 같다.

(三) 裳

裳은 原來 高句麗의 固有服飾이 아니고 中國의 影響에 의해서 着用되었다고 본다. 高句麗壁畵를 보면 女性은 袴위에 裳 혹은 裙을 襦밑에 着用하고 있다. 舞踊塚의 侍女와 舞姬 角觝塚의 侍女는 짧은 기장의 裳을 입고 있어서 밑에서 袴가 보일 程度이지만 대개바닥까지 오는 긴 치마를 着用했다. 特히 修山里古墳의 侍女와 貴人女는 긴 기장의 裳을 입고 있으며 貴人女는 세로줄 무늬의 裳을 着用하고 있어서 日本의 天壽國繡帳 혹은 高松塚의 女性의 裳과 흡사하다.

또한 裳은 幅이 넓은데 단지 安岳三號墳의 女性은 筒形의 裳으로 무릎밑까지 밖에 오지 않는 기장이어서 例外이다 裳의 裾에는 한줄 혹은 두줄의 緣裝飾이 있는데 裳의 幅이 좁고 주름이 없는 것에는 띠를 매고 있는 경우도 있다.

(四) 袍

袍는 襦袴 위에 着用한 表衣이다. 보통때는 襦袴 혹은 襦裳을 입었고 袍는 儀禮服, 혹은 外出服으로 입었다. 袍는 男女 共通으로 입은 것 같으며 그 形態를 보면 直領에 衽은 左衽, 右衽, 交衽이 있다. 또한 襈이라고 하여 袖口, 領, 裾에 緣裝飾이 있다. 前述했지만 袍의 경우도 襦와 同一하게 左衽이 基本型이고 中國의 影響에 의해서 右衽이 되었다고 본다. 袖는 손목까지 덮는 긴 筒袖로 어떤 때는 손목까지 오는 것도 있고 袖에 汗衫 같은 것을 달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雙楹塚의 女人像에서 볼 수 있다. 또한 袖의 形態가 넓고 긴 것도 있다. 이것은 高句麗古墳壁畵의 人物像이 팔짱을 끼고 있는데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修山里古墳에서는 大袖를 입고 있어서 袖의 大小는 階級과 關係없이 時代가 지남에 따라 변한 一種의 中國의 影響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와같은 高句麗式의 袍는 日本의 埴輪에 나타나 있지 않고 『北史』에 「衣似袍而袖微大」라고 있어 百濟에서는 衣가 袍를 가르키며 보통때에 袍를 着用하고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注意해 두어야 할 點은 安岳三號墳과 龍神塚의 女性의 服飾이다 安岳三號墳은 高句麗古墳中에서 初期의 것에 屬하는데 이 古墳의 服飾은 中國化된 것이 많다. 事實 古墳의 主人像이 中國人이라면 이러한 衣服을 着用하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龍神塚의 服飾은 盤領이며 合衽이다. 裳과 衣가 連結되어 있고 기장은 대개 발이 보이지 않을 程度로 길며 허리에 前裳을 두르고 帶를 매었으며 衣는 筒袖이다. 衣에는 또한 領, 袖口에 혹은 袖口에만 襈裝飾이 있다. 龍神塚의 女性像은 裳의 裾에 白色의 緣飾이 있다. 特히 衣는 盤領이어서 高句麗의 傳統的인 基本型과 다르다. 그러나 『三國志』[8]에 男女가 모두 曲領을 입는다는 記述이 있어 이러한 形의 것도 있었다고 본다. 日本의 埴輪에 이와같은 盤領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그 事實을 明白히 한다.

(五) 帶

帶는 襦와 袍에 使用되었는데 金玉製, 皮革, 角, 布帛, 等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帶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高句麗古墳에 나타난 人物像은 布製이며, 襦나 袍위에 매고 있다. 또한 安岳第三號墳은 中國的인 角帶와 같은 것으로 넓은 帶, 좁은 帶를 매고 있다. 日本의 埴輪은 新羅의 土偶처럼 넓은 帶를 한번 맨 것 같이 보인다. 十六品官階에 關해서는 後述하겠지만, 百濟에서는 『隋書』等의 記錄에 의하면 十六品官階의 制度가 있어서 官服의 品에 따라서 帶의 色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銀製銙帶와 腰佩는 新羅와 같이 百濟時代에 銙帶와 腰佩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着用된 모습은 窺岩里出土의 鬼面文博에서 볼 수 있다.

(六) 冠帽

冠帽는 巾에서 出發했다고 본다. 巾은 머리를 들어올린 후 修髮한 것으로 現在까지도 수건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農村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唐書』[9]에 巾幗이라고 하는 것으로 高句麗古墳壁畵의 角觝塚의 婦人像에 보인다.

記錄에 의한 最初의 冠帽는 幘과 折風이다. 이것은 巾幗에서 變遷한 것이다. 幘과 折風에 關해서는 같은 記錄[10]이 반복된다. 『三國志』魏書東夷傳高麗條에 의하면 幘은 뒤가 없고 折風은 그 形이 弁과 같다고 하는 記錄이 있어 幘은 漢, 魏의 幘과 類似하나 뒤가 없고 折風은 弁과 類似한 것이 었다고 본다. 이들은 高句麗의 獨特한 冠帽였다. 冠帽의 基本形態는 冠밑에 쓴 것으로 生覺되는 弁形의 內冠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弁形의 冠帽에 修飾이 생겨서 幘이 되고 弁形의 冠帽(즉 折風을 말함)에는 胡服系統의 風習인 鳥羽를 꽂아 鳥羽

冠이 되었다고 본다. 南部地方에서 出土되는 金冠, 金銅冠은 內冠과 外冠으로 되어 있는데 이 內冠이 弁形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鳥羽形의 裝飾이 있다. 이 鳥羽形의 裝飾은 唐草文의 手法인 飛龍文系唐草文[11]으로 表現되어 있다. 이들 形態와는 全然 다른 形態로 笠이 있다. 龍神塚과 新羅의 金鈴塚 等의 騎馬人物像等에 보이는데 最近 中央아시아의 아스타아나古墳群에서 出土된 騎馬人物像도 이 形態의 笠을 쓰고 있어 注目할 만하다. 이 笠은防暑와 防雨兼用의 冠帽이다.

(七) 履物

履物에는 皮革製의 靴와 布帛이나 藁製로 된 履系統의 것으로 大別된다. 皮革製의 靴는 北方遊牧民族들이 使用했던 것에 屬한다. 四神塚, 雙楹塚의 壁畵에 表現된 靴는 목이 긴 靴이다. 履는 南方農耕民族型으로 三國時代의 遺物은 거의 金屬製이다.

履는 우리말로는 신발 全體를 가르키는 신의 意味로도 使用되며 新羅語로는 履物을「洗」이라고 했다.
慶州의 金冠塚에서 出土된 金銅製의 履는 實用品이 아니고 副葬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武寧王陵에서도 出土되었다.

(八) 裝身具

『日本書記』仲哀記에「眼炎之金銀彩色多在其國, 是謂栲衾新羅國焉」라고 있지만, 新羅뿐만 아니라, 三國時代는 金銀裝身具가 많고 金屬細工이 發達했다. 金冠以外에 銙帶, 腰佩, 釧, 指輪, 耳璫, 頸輪, 等 金銀을 많이 使用했다. 金銀을 使用한 裝身具는 原來 遊牧民族이 愛用했던 것으로 特히 耳璫은 東아시아 遊牧民族이 옛부터 愛用했는데 漢民族도 遊牧民族과 接觸하게 된 후에 使用했다고 한다. 日本의 古墳時代의 勾玉, 金銀製耳璫, 等은 그 技術을 韓半島에서 배운 것으로 본다. 特히 垂飾이 달린 耳璫은 5世紀頃 韓半島에서 가지고 간것이다. 細金細工의 源流도 中央아시아, 南러시아의 스키타이인인 遊牧民族이며 그 系譜로서 나타났다고 본다.

武寧王陵에서는 耳璫, 頸輪, 釧, 釵, 等이 出土되어 華麗했던 百濟文化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다. 그 中에 耳璫은 垂飾이 달려있고 垂飾의 끝은 金帽가 달린 翡翠로 만든 勾玉이 달려있다. 또한 6角으로 된 金製棒을 7節과 9節로 連結한 頸輪과4節로 連結된 釧이 있어서 意匠이 新鮮한 感覺을 지닌다. 日本語의 釧(구시로)은 우리말의 구슬에서 나왔다고 한다.

當時에 裝身具는 金銀 外에 玉이 많이 使用되었다. 『三國志』馬韓條에 玉을 衣에 綴하거나 목에 걸거나 귀에 달거나 하여 裝身具로 했다는 記錄이 있다.

三. 日本古代史에 미친 百濟文化의 영향

(一) 埴輪의 服飾 襦袴民族渡來

3世紀의 魏志倭人傳[12]에 의하면 그들은 貫頭衣와 橫幅衣를 着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4,5世紀 以後가 되면 韓國에서 騎馬民族이 日本에 건너가 原住民을 征服하고 支配階級으로 登場하게 되어 그들의 服飾은 우리나라의 三國時代의 服飾과 같이 된다. 그것은 주로 埴輪의 服飾에서 알 수 있다.

江上波夫氏의 騎馬民族日本征服說[13]에 의하면 韓半島 特히 金海地方에서 騎馬民族이 日本에 건너와 日本을 征服하고 그들이 支配階級이 되었기 때문에 現在의 天皇은 그 後裔가 된다고 主張한 것이다. 그러나 襦袴를 着用한 韓半島의 敗者의 諸部族集團이 먼저 말과 함께 日本에 건너가 그들 內部에서 騎馬生活이 익숙해진 다음 日本原住民을 征服하여 支配階級이 되었다고 본다. 日本에서는 4世紀初 彌生文化初期에 伽耶式인 竪穴式石廓墳이 出現하여 5世紀中葉이 되면 百濟系의 橫穴式石室墳이 九州에 出現된다. 江上波夫氏의 說에 따라서 4世紀中葉 騎馬民族이 日本을 征服했다면 伽耶式인 竪穴式石廓墳의 出現보다 半世紀나 空白이 생긴다.

3世紀頃의 韓半島는 三國이 統一을 하기 위한 混亂期였다. 바로 그때 北部에서 온 高句麗에게 南部의 여러 韓族의 集團이 日本에 건너갔다. 그들은 當時 巫俗信仰과 함께 服飾을 日本에 傳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南方的인 文化를 征服하고 農耕生活을 營爲하면서 乘馬와 鐵器文化를 가진 北方알타이系統의 새로운 文化를 成立하였고 그들은 原住民의 服飾까지 變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샤만文化를 日本에 가지고 갔다. 샤만文化의 象徵은 金銅冠인 天冠이다. 日本의 金銅冠은 伽耶系統에 屬한다. 日本의 考古學者는 이 金銅冠을 三韓과의 貿易에 의해서 가져왔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렇지만 샤만의 權威의 象徵인 金銅冠이 賣買의 對象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金銅冠은 死者와 함께 副葬品으로 넣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神聖한 象徵이었다. 때문에 그것을 賣買나 賜與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대개 被葬者는 그 地方의 族首長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信仰이 있었기 때문에 百濟, 新羅의 古墳中에 華麗한 意匠을 한 金銅製遺品이 副葬品으로 出土되고 있는 것이다.

3世紀에서 7世紀에 걸쳐 日本에 對한 中國歷史書의 記錄은 대개 三國志東夷傳을 踏襲했다. 그중에 梁의 職貢圖에는 倭使의 圖가 있는데 이것도 三國志 東夷傳

의 記錄처럼 描寫되어 있어서 實物을 보고나서 그렸는지는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當時의 埴輪의 服飾과 다르기 때문이다. 埴輪의 服飾은 韓半島의 服飾과 類似하게 變하는 時期였는데 이 事實에 關해서는 中國의 記錄은 全然 言及하지 않았다. 當時 日本은 中國에서 보아 역시 먼 나라였다.

高橋健自[14]는 埴輪의 服飾이 窄袖, 短衣, 大口袴, 脚結을 나타내고 있어 北魏時代의 畵像石의 人物像의 服飾과 類似하다고 北魏時代의 服飾의 影響을 받은 胡服系統의 服飾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그런데 畵像石의 年代가 521年에서 572年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埴輪의 製作年代가 5世紀中葉까지 올라가므로 氏의 主張은 流說이 되었다.

埴輪의 服飾은 6,7世紀 關東地方에서 發見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이때가 바로 韓半島에서 三國이 統一하는 前後의 時期였다.

埴輪에 나타난 服飾에 關해서 後藤守一[15]氏는 自生說을 主張했는데 龜井正道[16]氏는 反論을 提起했다. 龜井氏는 袴가 大口袴이고 脚結을 해도 步行에 適當했다고는 生覺안되며, 오히려 허리에서 넙적다리까지 여유있는 것은 乘馬때문일 것이다. 4世紀末부터 5世紀初에 걸쳐서 半島의 여러나라와 軍事的 文化的 交涉의 結果로서 5世紀前葉以後 차차 乘馬의 風俗이 생겨 乘馬에 適合한 服飾으로 上下衣形式이 새로 採用되었을 것이라고 그 可能性을 主張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上下衣形式의 衣服의 導入이 日本軍이 半島出兵에 의한 戰利品으로 보는 意識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만약 이것이 事實이라면 그때 日本人이 高句麗 軍事와 싸울 때 橫幅衣를 입고 步戰하여 新羅, 高句麗의 鐵器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17].

埴輪의 服飾은 脚結을 하고 있고 衣는 盤領이 많으며 襴이 차차 없어지는 點이 대개 4,5世紀에서 7世紀에 걸쳐서 三國時代의 服飾과 다르며 그외에는 類似하다. 그리고 埴輪에 나타난 服飾은 半島의 高句麗式, 伽耶式, 百濟式, 新羅式 等이 混合되어 있다.

(二) 韓半島에서 간 集團의 活躍

『日本書記』에는 應神天皇 14年 百濟에서 衣縫女가 渡來했고, 雄略天皇 7年(463) 百濟로부터 錦部定安那錦等을 招請하여 그 일파가 河內國錦部鄕에 定住했다[18]는 記錄이 있다. 또한 同 14年에는 漢織, 吳織과 衣縫의 兄媛, 弟媛가 來朝하고, 大和國檜隅野에 定住하여 織縫의 일을 했으며 그것이 나중에 飛鳥, 伊勢의 衣縫部가 되었다는 記錄이 있다. 여기서 渡日한 秦氏와 漢氏를 中心으로 當時의 渡日한 사람에 關해서 再考해 보려고 한다.

漢(아야)人과 秦(하다)人은 中國에서의 渡來人이 아니고, 아야(アヤ)의 原義는 韓國南部의 六伽耶의 하나인 安羅伽耶에서 由來한다. 秦에 關해서는 『新撰姓氏錄』에 秦字를 波陀라고 한다고 있어서 우리말의「바다」에서 왔다는 說과 海曲縣(慶尙北道蔚珍郡)의 古名인「波旦」에서 由來하는 說이 있다. 어쨌던 漢氏나 秦氏는 韓半島의 南部地方의 出身이라고 본다. 또한 吳織의 구레(クレ)는 句麗(高句麗)에서 由來하며 나중에「吳」字가 넣어졌다. 秦氏는 畿內地方에서는 山城, 攝津, 播磨의 沖積平野를 開拓하고 漢氏는 河內와 大和地方에 定住했다.

五世紀末에 들어서 百濟에서 渡來人이 繼續있었다. 葛井, 船, 津의 三氏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눈에 띄게 活躍한 것은 船氏로 그 一族은 財政이나 文筆方面에서 活躍했다.

한편 大和로 移住한 漢人은 東漢이고 先祖는 阿知使主이고 高松塚으로 有名한 檜隈가 그들의 故鄕이었다. 이곳은 또한 高句麗系의 吳織의 居住地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 地方에서 農業, 織物, 製鐵, 武器生產 分野에서 先進的인 役割을 했을 뿐만아니라 그들의 生產組織部의 制度는 나중에 部民制의 基礎가 되었다. 또한 各地에 分散되어 있던 渡日한 氏族을 비로서 行政的으로 組織한 것도 그들이었다.「評」(고오리)이라는 制度가 바로 이것으로「郡」의 名稱이 되는 것은 大寶令(701)의 일이다. 이 고오리는 古代韓國의 고을制度에서 由來한다. 渡日集團이 가지고 간「評」이 大寶令施行前에 先進地域에 있어서 行政區劃이었었다. 이와 같이 渡日人은 文化面만이 아니고 政治, 經濟, 社會의 組織을 展開시키는 데에 커다란 作用을 했다. 어쨌던 上代에 있어서 大陸에서의 技術者의 渡日定住와 後世에 傳承을 전하고 있다고 谷田閱次氏[19]는 主張하고 있으나「大陸에서의」라고 하기 보다도「半島에서의」라고 하는 것이 正確하다고 하겠다.

6世紀에 들어와「五經博士」等 많은 學者가 日本에 갔다[20]. 513年에는 段楊爾가 갔고, 3年後에는 高安茂와 交替하여 百濟에 歸國했다. 그들은 交替해가면서 儒敎經典의『易經』『詩經』『書經』『春秋』『禮記』 즉 五經을 가르쳤다. 553年에는 五經博士外에 易, 曆, 醫學博士가 交替로 派遣되었고 다음해에 易博士인 施德王道良, 曆博士인 固德王保孫 等이 渡日했다.『日本書記』에는 552年(欽明 13年)에 百濟의 聖明王은 佛像과 經論을 보냈다고 있다. 廐戶皇子(聖德太子)는 595年(推古 3年) 百濟僧 惠聰과 함께 온 高句麗僧인 慧慈를

師로 맞이했다. 597年에는 百濟에서 阿佐太子를 보냈고, 602年에는 僧 觀勒이 曆書와 天文地理書, 道敎에 關한 책을 傳했다. 이와같이 6世紀에서 7世紀에 걸쳐서 多數의 學者와 僧이 渡日했다. 한편 三國이 이 時期에 學者와 僧을 派遣한 것은 韓半島를 에워싼 情勢와도 關係가 있었다.

6世紀中葉이 되어 新羅가 勢力을 急速히 넓혀 伽耶諸國을 征服하고 漢江의 下流域에 進出하여 高句麗와 百濟의 領土를 侵蝕하기 始作했다. 新羅의 侵蝕에 威脅을 느낀 百濟는 高句麗와 關係를 맺으려고 했고 또한 渡日氏族인 蘇我氏와 密接한 關係를 유지하려고 했다. 聖德太子가 死亡한 後, 橘郎女는 天壽國繡帳을 만들게 했다. 이것은 『上原聖德法王帝說』에 의하면 下繪를 東漢末賢, 高麗加西溢, 漢奴加己利, 三人이 그렸으며 이것을 椋部秦久麻가 指揮했다. 天壽國繡帳에 나타난服飾은 埴輪의 服飾과 같이 盤領인데 거의 高句麗의 修山里古墳의 人物像의 服飾과 類似하다.

(三) 百濟의 服制와 推古의 冠位十二階制의 再考

『三國史記』에 의하면, 古爾王 27年(260) 品官의 服色冠制를 定했는데, 28年正月初吉, 王은 紫大袖袍, 青錦袴를 입고 金花飾烏羅冠, 素皮帶, 烏韋履를 신고 十六品官階의 制度를 公布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中國의 史書에도 記錄이 있으므로 그대로 認定해도 될 것이다. 이를 中國의 歷史書等에 의해서 表로 나타내면 〈表 I〉과 같다. 一品 佐平에서 六品 奈率까지 銀花를 冠에 裝飾하고 七品將德에서 十六品 剋虞까지는 銀花飾이 없다. 帶는 一品 佐平에서 七品 將德까지는 紫帶, 八品 施德은 皂帶, 九品固德은 赤帶, 十品 秀德은 青帶, 十一品 對德과 十二品 文督은 黃帶, 十三品 武督에서 十六品 剋虞까지는 白帶로 되어 있다. 衣色은 官人은 緋色이고 官人이 아닌 者는 緋色을 禁하고 있다. 여기서 『隋書』 百濟條에 의하면 「官에 十六品있어 長을 佐平이라고 말한다. 次大率, 次恩率, 次杆率, 德率, 次奈率, 次將德, 服紫帶, 次施德, 皂帶. 次固德, 赤帶. 次秀德, 青帶, 次對德, 以下皆黃帶, 次文督, 次武督 次佐軍, 次振武, 次剋虞, 皆白帶를 使用하고 其冠制並같다」고 하는 記錄이 있어 帶의 色뿐만 아니라 十六品官階는 그 冠帶도 帶와 같은 色[21]으로 區別한 것이 아닌가 生覺한다.

다음 新羅의 服制를 보면 法興王十年(523)의 十七等官階의 公服制度는 〈表 2〉와 같다. 『三國史記』 法興王條에 「始制百官公服朱紫之秩」이라 있고 또한 色服條[22]

〈表 1〉 百濟十六品官階

官名	佐平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	將德	施德	固德	秀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剋虞
品級	一品官	二品官	三品官	四品官	五品官	六品官	七品官	八品官	九品官	十品官	十一品官	十二品官	十三品官	十四品官	十五品官	十六品官
冠飾	銀花						無									
冠帶色	(紫帶)						紫帶	皂帶	赤帶	青帶	黃帶		白帶			
色衣	緋衣															

〈表 2〉 新羅十七等官階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階名	伊伐湌	伊尺湌	迊湌	波珍湌	大阿湌	阿湌	一吉湌	沙湌	級伐湌	大奈麻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烏	小烏	造位
服色	紫衣					緋衣				青衣		黃衣					

에 新羅初의 衣服制度는 不明하지만 「法興王始定六部人服色尊卑之制」라 하고 그것은 夷俗이었다고 하는 記錄 이있어 注目할만 하다.

高句麗도 身分에 의한 服制가 있었다. 『唐書』東夷傳에 「其冠 및 帶는 咸金飾을 한다. 官의 貴한 者는 즉, 青羅를 冠으로 하며 다음은 緋羅를 가지고 二鳥羽를 꼽으며 金銀을 가지고 裝飾한다」. 또한 『新唐書』高麗傳에 「大臣은 青羅冠, 다음은 絳羅, 兩鳥羽를 꼽고 金銀雜釦」云云이라고 하듯 高句麗도 冠의 色으로 身分을 나타내었다. 中國歷史書等에 記錄된 高句麗의 冠帽와 身分과의 關係를 表로 나타내면 〈表 3〉과 같다. 鳥羽의 習慣이 있어서 百濟의 服制와 類似한데 이런 類의 服制는 『日本書記』에도 보인다.

〈表 3〉 階級에 따른 高句麗冠帽

階級 / 史書	王	貴人 / 大官人	官人	庶人
三國志		無後幘	折風巾	
後漢書		無後幘	折風巾	
南齊書		折風		幘
魏書		鳥羽折風弁		折風弁
北史		鳥羽折風弁 紫羅蘇骨		折風弁
南史		無後幘	折風弁	
周書		紫羅蘇骨 鳥羽蘇骨		
梁書		無後幘	折風巾	
隋書		鳥羽冠 紫羅冠		皮冠
通典		無後幘	折風巾	
唐書		青羅鳥羽冠	緋羅鳥羽冠	弁
新唐書	白羅冠	青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弁
翰苑		金銀鹿耳無後幘		折風

推古天皇 11年(603)에 「始行冠位, 大德小德, 大仁小仁, 大禮小禮, 大信小信, 大義小義, 大智小智, 並十二階, 並以當色絁縫之, 頂撮摠如囊, 而著緣焉, 唯元日著髻華」라고 定하고 다음해 正月에 施行되었다. 이미 官位十二階制에 關해서는 尾崎元春, 宮崎市定, 井上光貞 黛弘道氏[23] 等에 의해서 中國制度를 模倣했다기 보다도 朝鮮制度를 模倣했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武光誠氏는 「冠位十二階의 再檢討」에서 冠位十二階制로 定해진 冠의 形式이 三國의 冠의 形式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舊唐書』倭國傳에 「衣服之制, 頗類新羅」라고 있는 點, 埴輪人物像의 服裝과 高句麗의 古墳壁畵의 人物像의 服裝과 共通點이 보이는 點에서 日本과 三國의 服裝은 原來 類似했기 때문에 冠位十二階의 冠과 三國의 冠이 비슷하다고 해서 冠位十二階가 三國의 것을 模倣하여 定해졌다고는 生覺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氏는 儒敎의 古典인 禮에 보이는 爵에 있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그 論文에서 「더우기 朝鮮三國의 位에도 冠位十二階와 같이 冠의 色에 의해서 身分을 나타내므로 朝鮮三國의 位가 推古朝의 爲政者에 冠位制의 發想을 주어 그러한 制度를 만들게 한 것은 事實일 것」이라고 그 影響을 消極的으로 肯定했다. 여기서 「當色」에 關해서 論할 여유가 없으나 三國의 服制가 官位十二階에 影響을 주었던 것은 事實일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天壽國繡帳, 埴輪의 人物像, 高句麗古墳壁畵의 人物像이 입은 服飾에 共通性을 가진 點, (이 點은 百濟, 新羅의 服飾도 이에 準한다고 본다) 渡日人의 活躍, 服制가 定해질 때의 日本朝廷의 情勢, 百濟의 服制 및 高句麗, 新羅의 服制 等에서 推古의 冠位十二階는 三國時代의 服制, 그중에도 特히 百濟의 十六品官階의 影響이었다고 生覺된다.

『周書』百濟傳에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라고 있는 것처럼 冠에 翅를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推古의 服制에도 元日(旦)에는 髻華를 꼽는다고 있다. 또한 百濟의 王은 冠에 「金蘤」를 裝飾한다고 『新唐書』에 있다. 『隋書』 東夷傳倭國條에 「以金銀鏤花爲飾」이라고 金銀花도 나오고 있다. 武光誠氏는 冠位十二階를 儒敎의 古典인 禮에 보이는 爵에서 模倣했다고 主張하지만 6世紀에 들어와 百濟에서는 五經博士를 비롯하여 많은 學者의 渡日이 있어서 五經을 가르쳤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儒敎의 古典인 禮에 있는 「爵」으로 說明해도 그것도 百濟의 渡來人에 의해서 배운 制度일 것으로 본다.

『唐書』東夷傳倭人傳에 「衣服之制 頗類新羅」라고 있고, 新羅法興王의 服制는 夷俗이었다고 하는 記錄이 있으므로 中國에서 模倣한 服制는 아니라고 본다. 冠位十二階의 當色에 關해서 記錄이 없고 그 當時朝廷이 親百濟政策이었기 때문에 百濟에 服制에 의한 冠帶의 六色과 같은 것이 當然한 일이므로 따로 記錄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하고 生覺한다.

王服에 關해서는 『舊唐書』東夷傳에 記錄이 보인다. 이에 의하면 王의 大袖紫袍에 青錦袴를 着用하고 있으므로 이 袴는 大口袴였다고 본다. 特히 王의 袍가 大

袖 였기 때문에 一般은 大袖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金花를 裝飾한 烏羅冠이란 것은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王과 王妃의 金花로서 이것은 冠에 裝飾한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밖에 武寧王陵에서 金銅履가 出土되었는데 이것은 副葬品으로서 넣은 것으로 보통때에는 신지 않았던 것이아닐까 왜냐하면 王의 服飾에 王은 烏革履를 신었다는 記錄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밖의 百濟에 關한 記錄을 보면 百濟人은 官人의 衣服에 緋色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며[24] 在室者는 머리뒤에 編髮하여 이것을 뒤에 늘어트리고, 出嫁女는 頭髮을 두갈래로 나누어 이것을 머리위에 盤한다고 하였는데 이 記錄은『隋書』에도 보인다.

四. 結 語

以上 百濟服飾을 考察하기 爲해서 歷史書 및 高句麗古墳壁畵等에 의해서 그 基本型을 다루고 4世紀에서 7世紀에 걸쳐서 韓日關係를 渡日人과 服飾의 問題를 中心으로 보아왔다. 그것을 要約하면 百濟服飾은 三國共通으로 北方騎馬民族에 屬하는 胡服系統의 服飾이다. 다시 말하면 襦와 袴(褌), 혹은 襦와 裳(女性의 경우)으로 된 上下衣形式이며 이들 위에 袍를 입는다 머리에는 冠帽를 쓰고, 靴 혹은 履를 신었다. 이러한 服飾形態는 日本의 埴輪等에 나타나서 當時 半島에서의 渡日人을 襦袴民族渡來說에 의해서 그 文化의 影響을 再考해 보았다.

그중에서 推古冠位十二階制는 三國의 服制, 特히 百濟의 十六品官階의 制度를 模範으로 하여 정했다고 生覺한다. 百濟의 服飾은 北方騎馬民族에 屬하며 더우기 裝身具의 아름다움은 北方騎馬民族特有의 性格을 띈다 이러한 性格은 百濟뿐만 아니라 三國이 共通的인 特性을 지닌다.

追記 ; 이 論文은 지난 5月 17,18兩日間에 걸쳐 日本東京에서 열렸던 服飾美學會에서 筆者가 發表했던 發表內容이다.

引用文獻

1)『梁書』諸夷傳百濟條,『魏書』列傳百濟條,『周書』列傳異域百濟條,『隋書』列傳東夷百濟條, 『北史』列傳百濟條 等

2)『隋書』列傳東夷新羅條,『北史』列傳新羅條, 『舊唐書』列傳新羅條에 의함.

3)『北史』高句麗條.

4) 拙稿「바지의 起源 및 그 交流」『國民大學論文集』第16輯(1979).

5)『三國史記』色服新羅條.

6)『南史』東夷傳百濟條.

7)『北史』東夷傳百濟條.

8)『三國志』魏書東夷傳濊條.

9)『唐書』東夷傳

10)『三國志』魏書,『後漢書』,『梁書』, 『南史』, 『北史』,『通典』等에 보인다.

11) 拙稿「唐草紋樣의 系譜」『美術資料』第18號(1975)

12)『三國志』魏書東夷傳.

13) 江上波夫『ユーラシア古代北方文化』 全國書房(昭和 23)

14) 高橋健自『日本服飾史論』大鐙閣(1927)

15) 後藤守一『日本古代文化研究』河出書房(1942)

16) 龜井正道『日本考古學古墳時代』下(1973)

17) 金東旭『新羅의 服飾』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 78頁(1979)

18)『日本書記』雄略天皇 7年條.

19) 谷田閑次, 菅原珠子『服裝文化史』日本女子大學通信敎育部 7頁~8頁(昭和 53)

20)『日本書記』欽明天皇條

21) 增田美子「冠位十二階の當色について」『服飾美學』第七號 氏는 帶가아니라 冠帶, 즉 冠의 帶의 色으로 解析하고 있다. 일단 帶와 冠의 色으로 解析했는데 諸氏의 意見을 바란다.

22)『三國史記』色服新羅條

23) 井上光貞『日本古代國家の研究』, 黛弘道 「冠位十二階考」『歷史と文化』Ⅶ,『宮崎市定「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朝鮮學報』十四

24)『唐書』例傳東夷傳百濟條